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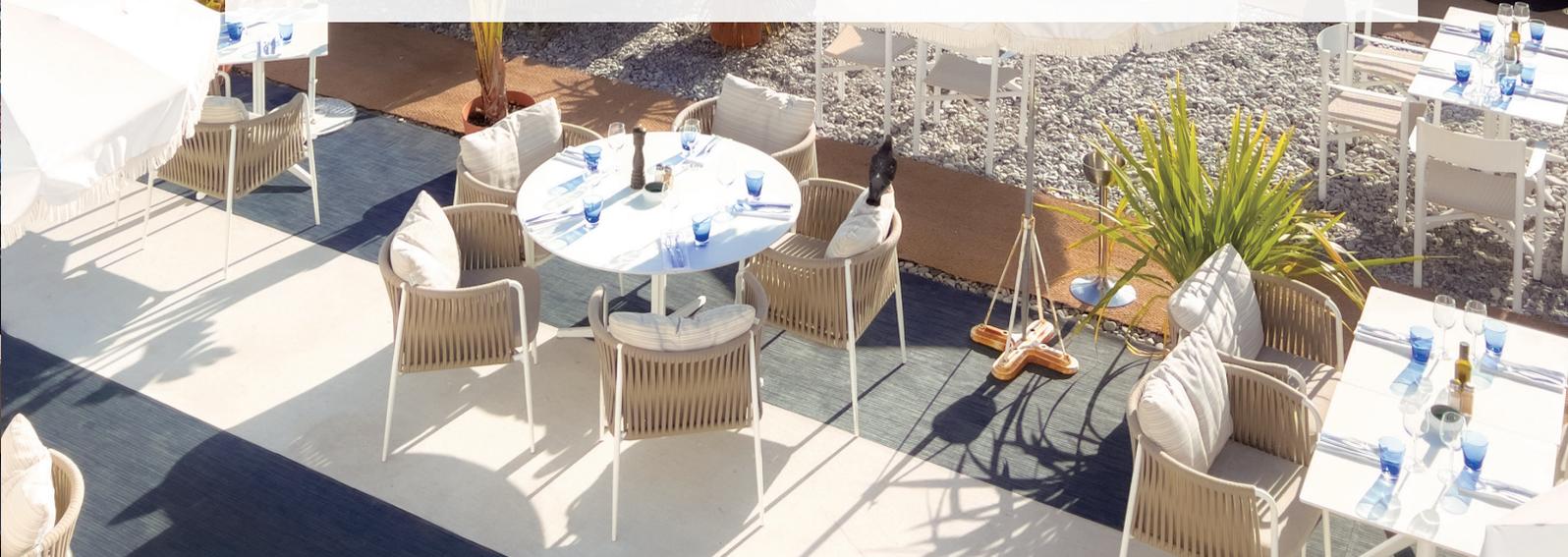
갤럭시로 보는 세상 스마트폰 카메라 100% 활용법

글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mistyfriday@me.com

따가운 별 피해 두 눈 질끈 감으니
기다렸다는 듯 파도가 거세졌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기세에 겁을 먹었지만 몇 번 더 왔다 간 뒤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운율을 즐겼다. 해변보다 사오 미터는 높은 산책로까지 파도가 올라올 리 없었다. 때마침 잠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대로 이삼십 분 낮잠을 잤더니 비 맞은 생쥐 꼴로 센 강변을 서성였던 때가 뒤송송한 꿈처럼 느껴졌다. 파리에 머문 내내 바랐던 여유가 니스에서는 빵집 수만큼이나 흔했다. 따지자면 둘 다 물인데도 비와 파도를 겪는 기분은 그렇게나 달랐다.

올여름에도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이 시기가 되면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다. 휴가를 앞두고 준비할 것들에 또 하나가 추가된 것일까. 추억을 근사하게 남기고자 하는 일념으로 모인 수강생들에게 나는 프랑스 남부 휴양지 풍경을 소개하며 운을 댄다. 바다, 강, 계곡 심지어 장마와 소나기까지. 여름날 추억에는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휴가 때 인생 사진을 찍고 싶다면 물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감동도 추억도 두 배 반영 사진 촬영

잔잔한 물 위로 주변 풍경이 비치면 사람들은 잠시나마 무방비가 된다. 흡사 데칼코마니처럼 상하로 똑같이 찍어 낸 솜씨가 바라볼 때의 감동도 두 배로 만드는 걸까. 어쨌거나 반영 사진이 물을 활용한 가장 근사한 연출법들 중 하나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매력을 여름휴가의 추억을 담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

카메라의 위치를 낮추거나 거꾸로 들어 촬영하면 반영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반영 사진 촬영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움직임. 바다보다는 호수나 연못처럼 고여 있는 물에서 선명하게 보인다. 날씨 역시 중요한 변수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가급적 피하고 빛이 강한 낮보다는 아침과 늦은 오후, 밤에 촬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도는 물의 표면을 화면 중앙에 맞춰 상하 대칭을 강조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부 모델은 화면 중앙에 수평을 교정하는 선이 표시되는데, 이를 구도 설정에 활용해 보자. 카메라 설정에서 '수직/수평 안내선' 옵션을 선택하면 된다. 물에 비친 장면을 더 넓게 촬영한 뒤 사진을 뒤집어 보는 것도 반영 사진의 묘미를 살린 연출 방법이다.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에서는 간밤에 내린 비가 고인 물웅덩이 앞에 쫓그려 앉아 도시 풍경이 비친 반영 사진을 찍는 모습이 흔하다. 부산 해운대의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반영 명소에서는 아예 바닥에 물을 부어 직접 웅덩이를 만들기도 한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의 위치를 물 표면 가까이 낮춰 촬영하는 것이 좋다. 물에 비친 풍경이 더 넓게 표시되고 대칭되는 두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초광각(0.6x 또는 0.5x) 카메라를 선택하면 그 효과가 한층 도드라진다.



광각(좌), 초광각(우) 카메라로 촬영한 반영 사진 비교



반영을 활용한 인물 사진의 예



유리창을 활용한 반영 사진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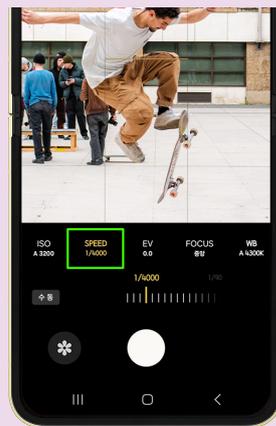
수영장에서는 인물 반영 사진을 촬영해 보자. 풍경 촬영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물 표면에 가깝게 가져간다. 마치 물 위에 주인공이 서 있는 듯한 연출과 함께 선명한 반영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때 스마트폰이 물에 빠지거나 수분이 유입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IPX7 또는 IPX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사용 중이라면 최대 1-1.5m 깊이, 30분간 수중 촬영이 가능하다. 방수 설계가 되지 않은 스마트폰은 방수팩 등의 장비로 대응할 수 있다. 만약 주변에 물이 없거나 선명한 반영을 촬영할 수 없을 때는 거울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가져다 대는 것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스마트폰 화면과 유리창, 자동차 표면 등 반사율이 높은 물건들도 효과가 좋다.



원본(좌), 하이라이트/그림자 보정(우) 비교



↑ 갤러리의 이미지 편집기(채도)



↑ 순간포착 기능
촬영 화면 - 더보기 - SPEED or SS

촬영 후엔 간단한 후보정으로 반영 사진 특유의 분위기를 배가시킬 수 있다. 갤러리에서 연필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 편집기를 실행한 뒤 조정 메뉴에서 하이라이트/그림자/채도 옵션을 사용한다.

사진 속 밝은 부분의 밝기를 제어하는 하이라이트는 낮게 설정하면 하늘의 파란색이 강조된다. 어두운 부분을 제어하는 그림자 값은 높게 조절해 하늘보다 어두운 풍경과 반영의 밝기를 보완한다. 이후 채도 값을 높여 사진의 색을 진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 밝고 시원한 느낌의 사진이 더해진다.

휴가철 액티비티에 제격 '순간 포착 기능'

액티비티 활동을 계획 중이라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된 순간 포착 기능을 활용해보자. 역동적인 움직임, 사방으로 튀는 물방울 등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담을 수 있다. 촬영 화면에서 사진 탭 오른쪽에 있는 '더 보기'를 터치한 뒤 프로 모드를 실행한다. 이 중 SPEED 또는 SS로 표기된 메뉴를 선택해 셔터 속도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 숫자가 적을수록 짧은 시간 동안 사진이 촬영되며 빠른 움직임이 선명하게 담긴다.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1/12,000초의 고속 셔터를 지원한다. 이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순간 포착 능력이다.

고속 셔터의 단점은 사진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는 것이다. 촬영 시간이 짧은 만큼 얻을 수 있는 빛의 양도 적기 때문이다. 화창한 날의 야외 촬영에서는 수천 분의 일초로도 충분한 밝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실내/야간 촬영에는 대응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피사체의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셔터 속도를 설정하는 것. 움직이는 사람을 촬영한다면 1/500-1/1000초면 충분하지만 곤충의 날갯짓이나 물방울의 형태까지 선명하게 잡고 싶을 때는 1/2000초 혹은 그보다 짧은 셔터 속도를 설정해야 한다. 프로 모드의 ISO 감도 값을 높여 사진을 밝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ISO 감도 값에 따라 사진의 노이즈가 증가하므로 이 역시 환경을 고려해 적절한 값을 선택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는 일상의 장면들을 넘어 풍경과 스포츠 촬영 등 전문적인 영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양한 상황을 대비한 장치와 기능들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손꼽아 기다린 여름휴가의 추억들을 담은 도구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크고 무거운 카메라에서 해방돼 소중한 순간들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가장 큰 매력이다.



필자 | 김성주

여행 작가 겸 사진가. 올림푸스 마스터즈 포토그래퍼.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진행

저서: '어쩌면_할 지도', '인생이 쓸 때, 모스크바', '그래서 제주'(공저)